

# ‘넷플릭스 잡았다’... 토종OTT, 스포츠·영화 등 콘텐츠 흥행

넷플릭스, 지난달 가입자수 16% ↓  
베이직 요금 없애고 공유계정 단속  
티빙-쿠광플레이, 월간 이용자수 ↑  
스포츠 중계·드라마 등 콘텐츠 영향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업계 1위 넷플릭스와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넷플릭스가 구독료 부담을 확대시키는 사이 티빙과 쿠광플레이는 스포츠 중계권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했기 때문. 특히 넷플릭스가 공유계정 단속에 나서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독자도 절반이 넘으면서 국내 OTT의 반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온라인 서비스 조사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6월 OTT별 앱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보면, 티빙은 739만9000명으로 넷플릭스(1096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티빙은 MAU가 27% 증가한 반면, 넷플릭스는 16%나 감소했다.

넷플릭스의 하락세는 올해부터 시작됐다. 3월에는 전달 대비 무려 79만명 가량 감소했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조만간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수는



넷플릭스 광고 지원 요금제 안내문.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최근 넷플릭스가 구독료 부담 확대 기조에 돌입한 데 이어 콘텐츠의 다양성도 줄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지난19일(현지시각)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제를 완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고 요금제로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공유 계정 단속에도 나섰다. 이에 구독자들이 해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한 ‘OTT 서비스 변화에 대한 이용자 반응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 이용자 63% 이상이 공유 계정이 금지될 시 OTT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내 OTT인 티빙과 쿠광플레이의 가입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티빙 애플리케이션(앱) 월간 사용자 수는 65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5% 증가한 셈이다. 이는 스포츠 중계는 물론 최근 공개한 콘텐츠가 연이어 성공을 거둔 것이 구독자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티빙이 생중계부터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영화, 예능 등 신규 콘텐츠를 마련했다. /티빙

tvN과 동시 공개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 ‘선재 업고 튀어’가 크게 흥행한 데 이어 오리지널 콘텐츠인 ‘이재, 곧 죽습니다’ 등도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

쿠광플레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월간 이용자수는 779만 8282명으로 자체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월 466만 ▲5월 468만 ▲6월 531만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702만명, 654만명, 663만명 등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성과는 스포츠 중계권이 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쿠광플레이는 MLB 공식 개막 2연전을 국내 팬들에 선보인데 이어 꾸준히 해외 스포츠 명문 구단을 초청해 이벤트 경기를 개최해왔다.

이번 쿠광플레이 시리즈에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와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을 찾아 국내 팬들 앞에서 대결을 펼친다. 또 오는 31일과 8월3일 열리는 ‘2024 쿠광플레이 시리즈’ 하프타임 무대의 주인공으로 각각 트와이스와 뉴진스를 확정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한화, 첨단항공엔진 등 韓 우주 기술력 알린다

26일까지 英 ‘판버러 에어쇼’ 참가  
통합 전시관·스페이스존 등 운영  
SAR 위성 등 항공·우주 역량 전시

한화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력을 선보인다.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항공엔진’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AESA레이다, 소형 SAR 위성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한화는 22~26일 영국 런던 근교의 판버러 공항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약 60평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그룹사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에어 존과 ‘발사체-관측위성-위성통신 서비스’ 등 종합 우주솔루션을 제시한 스페이스 존을 운영한다.



22~26일(현지시간) 영국 판버러 공항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한화 통합전시관 전경. /한화

‘에어 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항공엔진’ 프로토타입이 최초로 전시된다. 첨단항공엔진은 KF-21 전투기, 무인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5000파운드(lbf)급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이다. 한화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사’와 수출 계약까지 체결한 AESA레이다도

선보인다.

‘스페이스 존’에서는 한화시스템이 최초 국산화한 ‘소형 SAR 위성’으로 전장 상황을 관측하고, 2021년 투자한 유텔넷 원웹 위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 대응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SAR위성이 촬영한 국내 목포항, 미국 센트럴파크와 양키 스타디움, 두바이 팜 주메이라,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 등 세계 각지의 선명한 모습을 전시 현장에서 공개해 위성 관측 역량을 보여줄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도 전시된다. 2022년과 2023년 연이은 발사 성공으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성 고객을 모집하고 국내 민간 위성뿐만 아니라 해외 위성까지 발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양성준 기자 ysw@

## LGU+ “육아 문제 AI로 해결하세요”

‘익시 육아 매니저’ 출시

LG유플러스의 자체 개발 AI(인공지능) ‘익시(ixi)’가 이제 육아정보를 학습해 아이 양육까지 돕는다.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한 실시간 육아 상담 서비스 ‘익시 육아 매니저’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모의 자녀 양육 고민 해결을 돕는 앱 ‘부모나라’ 이용자들은 육아 전문 AI의 답변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육아 정보를 찾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부모나라는 키즈 전용 서비스 ‘아이들나라’의 핵심 고객인 영유아 부모들을 타깃으로 육아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부모나라는 육아와 놀이 고민을 편리하게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정식 출시 후 10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만 건을 넘어섰다.

이번에 추가된 익시 육아 매니저는 실시간으로 AI가 육아 상담을 진행해

준다. 부모가 실시간으로 육아나 교육 관련 질문을 올리면 익시 육아 매니저가 빠르게 답변을 함으로써 육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징징대는 아이에게는 어떤 훈육을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면, 익시 육아 매니저는 방송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에 출연했던 육아전문가 노규식 박사의 솔루션을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가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부모의 기대치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세요”라며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LG유플러스는 유명 전문가의 답변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육아 상담소’도 선보인다. 부모가 고민을 담은 사연을 제출하면 이용자의 프로필과 성향 진단 결과를 참고해 노규식 박사가 영상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유튜브 영상 제공

/구남영 기자 YouTube

## 세계 최초 IDC용 초전도 솔루션 출시

LS전선·일렉트릭

도심서 신규 변전소 없이 전력 공급

LS전선과 LS일렉트릭이 데이터센터(IDC)용 초전도 사업에서 협력한다.

LS전선은 LS일렉트릭과 함께 세계 최초로 IDC용 초전도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및 베트남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초전도 솔루션은 22.9kV(킬로볼트)의 낮은 전압으로 154kV급 대용량 전

력을 송전할 수 있어, 도심에 신규 변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아 님비(NIMBY)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LS전선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블 시스템의 공급과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LS일렉트릭은 초전도 전류제한기 등을 공급한다.

기존 변전소를 대체하는 초전도 스테

이션은 변압기 없이 분배기만으로 구성되며, 기존 변전소의 약 1/20 규모로 설계할 수 있어 공사 비용 절감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고장 전류 발생 시 빠르게 반응하여 단락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IDC의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손실 위험도 줄임으로써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양사는 초전도 시스템이 신규 IDC 건설 시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전력 안정성을 크게 개선하여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기술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 SKT, AI·AR로 파리올림픽 선수단 응원

‘에이닷’ AI 포토 서비스 이벤트

SK텔레콤은 2024 파리 올림픽 시기를 맞아 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을 기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 인공지능(AI)·증강현실(AR) 등 기술을 접목했다.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부터 대한체육회를 공식 후원 중인 SKT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

이기 위해 자체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했다.

AI 개인버서 애플리케이션(앱) ‘에이닷’ 내 AI 포토 서비스를 통해 SKT가 후원하는 선수들(Team SK·팀SK)과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AI 프로필’ 메뉴에 들어가서 함께 이미지에 담고 싶은 선수를 선택하면 선수들과 함께 찍은 것과 같은 AI 이미지를 생성해준다.

/구남영 기자